

경기도, 경상남도 1위 놓고 '초접전'

경기도 메달 233개 획득
경남과 147점차 '초접전'



경기도체육회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나흘째인 10일 오후 5시 현재 경기도선수단이 메달 233개를 획득(총득점 1만4514점)하면서 종합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메달 획득 현황은 금메달 85개, 은메달 68개, 동메달 80개다. 경상남도는 금메달 30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71개

(총득점 1만4367점)으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다. 총득점은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총 147점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금메달 38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38개로 14위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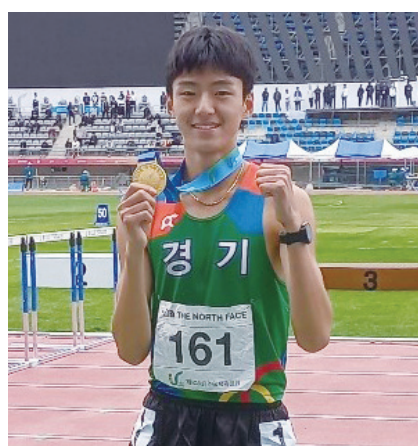
7일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첫날 사격 여자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박선민(경기도청)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경기도선수단은 유도에 출전한 이혜빈(경민고)이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우승 문턱에 바짝 다가섰다.

또한 8일 역대 여자19세이하부에 출

전한 박혜정(안산공고)이 용상·인상 등에서 3관왕을 올렸다.

특히 유가람(27·안양시청)은 여자 일반부 볼러 스피드 1만m 경기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가람은 8일 울산 문수롤러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일반부 볼러 스피드 1만m 제외경기서 17분13초392를 기록했다.

이원식 경기도 선수단장은 "경기도 선수단의 사기가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기대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면서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창 기자



경기도선수단 김태훈 선수가 5000m 남자육상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보이고 있다. (사진=경민일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인천시 소속 고등학교 선수단을 격려했다. (사진=인천시)

전국체육대회 출전 인천 고교선수단 격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개막식장 찾아 선전 기원

이날 경기는 인천고가 3회와 4회 각각 5점과 4점을 뽑으며 제주고를 9-3으로 대파, 응원차 경기장을 찾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인천시 소속 고등학교 선수단을 격려했다.

신중식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인천시 교육청 본부 상황실을 찾아 인천교육청 관계자 등을 격려한 후 개막식장을 찾아 인천시 고교 대표선수단을 입장을 함께 하며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어 다음날 8일에는 울산 중구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19세 이하부 인천고등학교와 제주고등학교의 예선 1차전을 관람하며 직접 응원하고 격려했다.

안중삼 기자

조은비·조은지 자매, 전국체전 다이빙 금메달

조은비 "서로 솔직해 싸우기도"... 동생 조은지 "언니는 내 '믿는 구석'"



"자매끼리 하나씩 싸울 때가 조금 많긴 해요. 서로 너무 솔직해서 가끔 싸워서 시합때 말도 안한다니까요"

국가대표 14년 차 베테랑 다이빙 선수 조은비(27·인천시청)는 3m 싱크로다이빙에서는 두 살 아래 동생과 함께 시합에 나선다.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 3m 싱크로 결승에서 첫선을 보인 자매팀은 바로 금메달을 따며 가족의 힘을 입증했다.

이듬해 대회에서는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마지막으로 정상 개최된 2019년 체전에서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합을 자랑했다.

9일 오후 울산문수수련수영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자매는 또 시상대 맨 위에 올랐다. 자매끼리 수확한 통산 세 번째 금메달이다.

경기 후 조은비는 인터뷰에서 조은지와 함께 뛰는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선배끼리 싱크로에서 합을 맞추면 불만이 있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금메달을 딴 조은비(왼쪽), 조은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서로 너무 솔직해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오늘은 특별히 사이가 좋은 날이었다"고 털어놓자, 조은지(25·인천광역시청)도 웃으면서 "오늘은 안 싸웠다"고 거들었다.

자매는 나란히 인천체고를 졸업했다.

언니 조은비가 먼저 인천시청에 입단했고, 동생 조은지는 경기도체육회에 잠깐 몸담다가 2017년 언니네 팀으로 합류

하면서 '다이빙 자매'를 결성했다.

조은지는 어린 나이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여러 차례 국제무대에 섰던 언니와 함께 뛰는 게 쉽게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고 했다.

그는 "언니랑 뛰다가 연기를 가까이서 보면 나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물론 선수로서 위상이 다른 만큼 언니와 동생이 바라보는 지점도 달랐다. (연합뉴스)

순위	시·도	총득점
1	경기	14,514
2	경남	14,367
3	부산	13,416
4	서울	13,406
5	경북	13,325
6	충북	11,828
7	대구	11,215
8	충남	10,330
9	전북	10,005
10	전남	9,921
11	강원	9,780
12	울산	9,265
13	광주	9,021
14	인천	8,655
15	대전	7,207
16	제주	2,282
17	세종	2,196

10일 오후 5시 현재



연천 미라클 독립야구단(연천미라클)이 2022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고 결선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파주시 첼린저스에 2승을 거두며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 성남시 맥파이스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사진=연천미라클)

연천미라클-성남시 맥스파이스 오늘 '열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고
챔피언 결정전서 맞붙어

연천 미라클 독립야구단(연천미라클)이 2022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고 결선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파주시 첼린저스에 2승을 거두며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 성남시 맥파이스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연천미라클은 지난 5일 경기 광주 팀 업캐퍼즈 2야구장에서 열린 2022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고 정규리그 3위팀 파주시와 3전 2선승제로 진행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했다.

앞서 연천미라클은 1차전 9회말 3대4로 뒤지던 2사 만루서 박영민의 2타점 끝내기 안타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2차전에서는 11대5로 대승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다.

연천은 1회초 2사 후 황영목의 안타와 김시우의 볼넷으로 만든 찬스에서 임도경이 중전 적시타를 쳐 선취점을 뽑았지만 2회말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파주 이찬우의 적시타로 1점을 더 내줘 1대2로 역전을 허용했다.

5회초 황영목의 1타점 1루타에 이어 상대의 수비 실책 등으로 2점을 올려 3대2로 다시 승부를 뒤집었고, 이후 1사 1, 3루에서 이승우가 좌중간을 가르치는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5대2로 점수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6회말 적시타를 허용하며 5대4로 추격당한 연천은 7회초 파주 내야수의 실책으로 2점을 올렸고 이후 구원투수 장재원의 깔끔한 피칭과 8회초 이상민의 2점 홈런과 연이은 수비 실책으로 11대4로 점수차를 벌리면서 파주에 추격을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파주는 8회말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따라붙었으나 이후 연천의 투수들의 좋은 투구에 경기는 11대 5로 종료됐다. 이날 연천군 미라클 유격수 황영목은 5타수 4안타, 2타점 3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연천군 미라클은 5전 3선승제 결승에서 정규리그 우승팀 성남시 맥파이스와 11일 1차전을 시작으로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한다. 김인식 연천미라클 감독은 "지난해 어렵게 준우승에 머문 만큼 올해는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성대 기자

'높이뛰기 세계 1위' 우상혁, 용인 온다

용인시청 직장운동부 입단
2.38m 목표로 국제 무대행

2021~2022 시즌 높이뛰기 세계 1위이자 한국 최고기록(2.36m) 보유자인 우상혁 선수가 용인특례시 유니폼을 입게 된다.

용인시는 우상혁 선수가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에 입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상혁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 까지 2년간 용인시청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는 오는 20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입단식을 열고 우 선수에게 단복을 전달한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미르스타디움 육상트랙의 2중 공인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으면 전국규모 육상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당시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상혁 선수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내밀었는데도 용인시를 선택했다. 우상혁 선수는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국민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세계대회에서 1위를 하는 등 크게 성장함에 따라 국민도 더 큰 성원을 보였다.

2022년 세계육상연맹이 공인하는 높이뛰기 종목에서 랭킹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로 자란 것이다.

한국 높이뛰기 남자부에서도 최고 기록을 보유한 그는 자신의 키보다 50cm 더 높은 2.38m를 목표로 국제 무대를 누빌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인 우상혁 선수가 용인을 대표하는 선수가 된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우 선수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근상 기자



2021~2022 시즌 높이뛰기 세계 1위이자 한국 최고기록(2.36m) 보유자인 우상혁 선수가 용인특례시 유니폼을 입게 된다. (사진=용인시)

한국 펜싱, U-23 아시아선수권 여자 사브르 금·은·동 석권

남자 에페서도 금·은 추가

한국 펜싱이 23세 이하(U-23) 아시아 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개인전 시상대를 휩쓸었다.

8일(현지시간) 쿠웨이트의 쿠웨이트 시티에서 열린 2022 U-23 아시아선수

권대회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선 최지영(익산시청)이 우승을 차지하고, 최세빈(전남도청)이 준우승했다.

이어 전수인(전남도청)과 홍하은(서울특별시청)이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선수들이 금·은·동메달을 모두 가져왔다. 준결승전에선 최지영이 홍하은을 15-

12, 최세빈이 전수인을 15-13으로 물리쳤고, 결승전에선 최지영이 최세빈에게 15-14 신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결승 맞대결이 벌어진 가운데 권오민(한국국제대)이 홍세화(대전대)를 15-10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전날 금메달 하나와 은·동메달 두 개씩을 따냈던 한국은 대회 둘째 날 열린 대부분의 메달을 휩쓸며 이번 대회에서 이틀간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수확해 7회 연속 종합 우승을 향해 순항했다.

한국은 U-23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2014~2019년 6연패를 달성했고, 이후 3년 만에 이번 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최세빈·최지영·홍하은·전수인. (사진=연합뉴스)